
2019년도 대학회계 본예산편성(안) 교수회 검토 보고서

2019. 01. 28.



[교수회]

목 차

Ⅰ. 들어가며	1
Ⅱ. 검토사항 및 제언	1
Ⅲ. 결론	6

I. 들어가며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충남대학교 예산편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예산편성의 적정성·효율성·형평성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I. 검토사항 및 제언

1. 대학회계 학술연구비(자체연구비·신임교수정착연구비·CNU 학술연구비·우수논문 게재료 지원 등) 배정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도 본예산편성안을 심의한 예산편성위원회는 총 47억원을 학술연구비 예산(2018년부터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항목으로 추가 편성됨)으로 편성함.
- 이는 2016년도 학술연구비 예산액(72억 원)과 동일한 요구액 대비 25억 원이 삭감된 금액임. 이런 삭감액이 2017년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근본취지는 교수의 연구력 강화에 있으며, 지난 2014년도 이후 지속된 CNU 학술연구비사업의 시행에 의해 연구실적지표의 눈에 띄는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이래 학술연구비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금액이 편성된 것은 교수 1인당 지원되는 액수를 감소시켜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제기됨. 중·장기적으로 교수의 연구력을 약화시켜 학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 교수회 권고

- 2016년도 학술연구비 예산액이 여전히 원상회복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함. 교수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증액편성을 요구함.

2. 전임교원의 파견연수 경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파견 및 연수제도 개선(파견 지원액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변화가 없음.

■ 교수회 권고

- 20명에 8백만원으로 지원을 하다가 파견인원을 25명으로 늘리면서 1인당 지원액을 640만원으로 줄였음. 이번 교무과 요구액인 1인당 지원액 1천만원은 삭감된 1인당 지원액을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임. 추경에서 지원액을 늘릴 것을 요구함.
- 파견 지원액 증액을 포함하여 파견 및 연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요구함.

3. 정책연구단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정책연구단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

■ 교수회 권고

- 그 필요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연구단의 존속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4. 인력개발원 국내외 현장실습 (뉴리더 인재 양성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현장실습, 특히 해외 현장실습 중 블룸필드 대학 파견의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음.

■ 교수회 권고

- 해외 현장실습의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 사업의 지속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III. 결 론

- 지난 몇 년간 교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본예산, 추경 심의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예산편성안이 재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교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19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위의 사항들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2019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하여 재정위원회에 상정하기 바람. <끝>